
		보 도 자 료		수도권매립지 종료	
		배포일자 2021년 7월 4일(일) 총 3매		 환경특별자치 인천	
담당 부서	자연재난과	담당자	• 기후지진팀장 김형석 ☎440-3366 • 담당자 손철호 ☎440-3358		
사진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
보 도 일 시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			

인천시지역자율방재단, 풍수해 대비 앞장서

- 인천 10개 군구에 총 2,040명 활동, 자발적 참여하는 지역 단위 방재조직 -
- 여름철 재해위험지역 42개소 지역자율방재단원 1:1매칭, 피해 확인 등 최 일선 지원 -

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는 기후변화 등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로 발생하기 쉬운 풍수해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읍·면·동 등 세분화된 단위에서의 재난대응과 사전예찰 활동을 강화했다고 밝혔다.

그동안 각종 재난상황에서 재난상황 최일선 파수꾼 역할을 수행했던 ‘인천시지역자율방재단’이 7월 3일 호우주의보 발효에 따라 관내 집수관 덮개제거, 우수관, 맨홀 점검과 하천주변 등 침수위험 지역을 중점적으로 사전예찰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.

‘인천시지역자율방재단’은 지역주민, 봉사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지역 단위의 방재조직으로서, ‘21년 5월 기준으로 인천 10개 군구에 총 2,040명이 활동하고 있다.

특히, 올해부터는 읍·면·동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확대를 통한 여름철의

실질적인 최 일선 현장 대응조직으로서의 읍·면·동 자율방재단의 역할을 부여했다.

또한, 올해 여름철 재해위험지역 42개소에 지역자율방재단원을 1:1매칭으로 지정해 호우 등에 따른 비상시 직접 통화 및 현장 방문을 통해 피해 여부 확인 등을 지원토록 했다.

이상범 인천시 시민안전본부장은 다가오는 여름철 풍수해도 ‘지역자율방재단’에서 재해위험지역 현장상황관리관으로 앞장서서 봉사를 실천해 줄 것을 당부하고, 지속적으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활동 참여에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”며 “앞으로도 지역자율방재단을 비롯한 지역사회와 합심해 재해 위험지역 및 코로나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다”고 말했다.

<붙임> 사진자료



공공시설 방역

